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9일 수요일 음 9월 11일 (3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하지만 찬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약간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14~15℃, 낮 최고 기온은 21~23℃로 나타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0%
0%	성산	0%
0%	고산	0%
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5/23℃
모레	맑음 16/2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높음

월드뉴스

中, 돈육대란… 영화 ‘옥자’ 실사판 나오나

초대형 돼지 사육 붐 일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돈육대란 대책으로 몸무게가 크게는 500kg까지 나가는 초대형 돼지를 사육하는 등 돼지를 가능한 크게 키우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의 한 농장에서 북극곰만 한 대형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이 농장의 돼지 중 일부는 도축장에서 1만 위안(약 167만원) 이상에 팔리는데, 이는 광시좡족자치구 성도인 난닝의 월평균 1인당 가처분 소득보다 세배나 높은 액수다.

블룸버그는 이 농장의 사례는 극단적 경우라고 언급하면서도, 돼지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공급난 속에 ‘돼지가 클수록 좋다’는 사고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 ‘옥자’ 포스터.

중국 지린성 양돈농가들은 일반적 인 비육 한계 무게인 125kg보다 훨씬 많은 175~200kg까지 살찌도록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최대 양돈업체인 원스 식품그룹을 비롯한 코프코 미트 등도 돼지의 평균 무게를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돈육대란의 영향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등장한 초대형 비육돈의 실사판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는 ASF로 사육 돼지 두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건강&생활



이 소 영

정신과 의사

내가 어르신 환자 분들을 볼 때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그 분들이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에 상관 없이, 인생이라는 장거리 레이스의 종착점에 가까이 간 분들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길의 방향도, 길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긴 여정의 순례자이다. 나 또한 그런 순례자의 한 사람이기에, 환자분들께 경외감과 부러움을 함께 느끼곤 한다. 길고 험한 등산로를 오를 때 나보다 훨씬 높이가 있거나 아니면 벌써 하산 중인 사람을 볼 때 드는 감정과도 비슷하다.

나의 미래가 우울하다면

그런데, 실제 삶에는 마라톤이나 등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다.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언제 가장 강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실제로 포기하는 일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나 연구가 있는지 찾아 본 일이 있다. 마라톤을 뛸 때는, 레이스의 절반을 넘었을 무렵부터 육체적 고통이 점점 극심해질 수록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것은 결승선이 가까워지면 다시, 포기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슬프게도,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승선이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계속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죽음이 갖는 영향력 혹은 자살이 언론에서 다루지는 방식 때문인지,

우리 나라의 특수성은 아마 심리 사회적 요인에서 찾아야 타당할 것이다. 급격히 이룬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현재 노년층이 겪어야 했던 적응의 부담 그 자체와 미처 노후를 준비한 대비할 기회가 없었던 세대의 대다수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노년층의 위기는 젊은 세대에게 ‘남의 일’이 아닌 내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것이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겪는 일들도, 내가 이미 지나버린 소아기에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제 수명대로 살아남는다면 겪게 될 ‘나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내 생의 마라톤 레이스를 뿌듯한 기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 노년 자살을 더 이상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하고 노인 복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이유다.

열린마당

세외수입 납부도 재기재기 허게마심



고 임 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나 사용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질서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주민의 일상 생활이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등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재원이며 공공서비스, 질서유지, 환경보호 등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세금납부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로 알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혜택 등을 지원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쓰이고 있듯이, 세외수입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지방세

청렴의 의미



강 경 미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공무원에 임용되고 나서 청렴이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해마다 청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렴’은 익숙하지만, ‘청렴하자’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청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그러면 ‘청렴하자’는 말은 ‘성품과 행실을 높게 하고, 탐욕을 없애자’로 풀어 쓸 수 있는가하면 그것 또한 추상적인 말이라 잘 와 닿지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다.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색·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2항 공

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향응이나 증여가 청렴과 연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으로 청렴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얼마 전 TV 예능프로그램 ‘캠핑클럽’에서 이효리가 남편 이상준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남편과 의자를 만들던 이효리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의자 아랫부분을 열심히 사포질하는 남편이 이상해 보여서 물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곳을 왜 열심히 사포질 하나고 물었더니 이상준이 말했다. “남들이 몰라도 내가 알잖아.”

이것이야말로 청렴의 의미와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했다. 주변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 스스로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공정히 수행하는 것, 사리사욕이 개입되지 않으며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원인을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등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청렴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파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잡초의 경감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따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한국병원

국제보청기 (국제기2층)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